

현대 한국 노동운동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과 그 한계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

류 제 철*

1. 노동의 위기와 새로운 노동사 쓰기

87년의 6월 항쟁과 폭발적인 노동운동의 전개는 박정희 정권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억압되었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공안정국,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 등 보수 세력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노동운동 발전과 노동계급의 정체성 형성을 가로막아 왔다. 더욱이 90년 대 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급증하였고, ‘지식·정보산업’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런 사회·경제적 상황은 ‘노동의 위기’를 불러왔다.

노동의 위기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포괄하고 있다. 1) 그 동안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았던 노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노동운동의 탈자본주의적 사명은 회의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시민운동의 성장은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의 주도성에 대한 강한 부정을 불러왔다. 2)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조건 변화는 대중소비 문화와 더불어 생산관계 중심적인 계급 개념의 과학성에 대한 학문적 비판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의 위기’는 ‘비판 사회과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3) 무엇보다도 ‘노동의 위기’는 한국 노동자들의 삶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과정, 사회학

위기'이다. 전 지구화와 대중소비문화, 불안정한 고용 등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본에 의한 소비의 주체, 중산층 문화를 모방하며 상상적 현실 속에 사는 이데올로기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런 점들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대응이 고전적인 혁명이론이나 계급론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양한 포스트 담론들의 경제결정론 비판, (계급)정체성 비판, 문화주의와 구성주의는 기존 이론의 근본적 재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사 쓰기는 생산 관계 중심의 노동사가 아니라 노동생활사, 선진적 노동운동가나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사만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의 노동자의 역사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 사회·경제적 조건과 노동자의 주체적 실천이 계급형성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자문화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해근의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의 번역 출간은 한국사회 노동계급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하여 노동계급형성과정과 노동자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모색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즉, 한국의 노동계급 형성과정이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공유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연구를 통하여 계급이라는 사회적 실체를 발견하고, 그 계급 고유의 생활양식(life-style)과 삶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꿈(collective dream)의 해석에 이르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E. P. 톰슨의 연구에서 가장 큰 학문적 영감 2)을 받은 저자의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이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형성에 관한 연구”와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산업화과정의 연구”³⁾로서 지니는 한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책이 지니는 연구의 한계는 풍부한 자료수집과 노동자의 일상생활사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노동사 연구자들의 뒤이은 연구를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노동자의 일상생활사에 대한 연구는 양과 질에 있어서 미천한 수준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 책의 의미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저자가 다루고 있는 노동계급형성의 역사적 과정 전체와 그 과정에 영

2)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2002), 6 쪽

3) 구해근, 앞의 책, 23 쪽.

향을 미친 모든 구조적, 문화적 기제를 다 검토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한 권의 ‘한국 노동계급 형성의 역사’를 쓰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계급 형성의 조건, 민주노조운동과 교회, 노동자 정체성과 민중문화와 같은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평을 하려고 한다.

2. 노동계급 형성의 조건

저자는 E. P. 톰슨의 구성주의적 계급형성론을 수용하면서 “사회계급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생활체험을 기초로 형성”되며, “이러한 구체적인 생활체험은 단지 생산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 내부와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형성된다”⁴⁾고 주장하였다. 즉, 저자는 생산관계와 작업장 중심의 계급형성론이 빠지기 쉬운 경제결정론을 경계하면서, 노동계급의 일상생활의 체험이 어떻게 다른 사회계급과 구별되는 노동계급 정체성과 노동자문화를 생산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식과 경험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문화주의(culturalism)’로 이끌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저자는 노동계급 형성에 영향을 미친 국가, 자본,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⁵⁾ 그는 이런 구조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산업화의 특성으로 1) 산업화 속도의 신속함, 2) 도시중심의 발달, 3) 도시지역 내 집중화, 4) 노동계급의 사회적 속성의 높은 동질성을 지적하고 있다.⁶⁾

그러나, 세 번째 특성으로 들고 있는, 도시지역 내 집중화가 “노동계급의 지역공동체 발달과 기업체 울타리를 넘어선 노동자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발달을 촉진했다”⁷⁾는 설명은 달리 생각해 볼 여지를 제공한다. 우선,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노동자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 의문스럽다. 장시간 노동과 기아선상의 빈곤은 노동자 거주지에서 노동자들간의 인간관계 형성이나 연대성의 실현을 어렵게 하였다. 더욱이, 공동체가 상호부조와 공통의

4) 구해근, 앞의 책, 11쪽.

5) 이와 관련해서는 구해근, 앞의 책, 2, 3장 참조.

6) 구해근, 앞의 책, 77쪽.

7) 구해근, 앞의 책, 77쪽.

규범, 문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동일한 공장 또는 비슷한 노동조건을 부여받은 노동자들의 지리적 밀집이 계급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공동체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는지는 의문스러운 것이다. 또한 농촌의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대규모 이농은 저연령, 저학력 등의 사회적 속성이 동질적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도시 빈민의 급증을 초래하였다. 산업화기 공장노동자가 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도시빈민과 공장노동자의 주거지역은 일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주거지의 빈민과 노동자는 생활수준은 비슷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 규율의 강도를 포함한 노동경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된다.⁸⁾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자의 지역공동체는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즉, 빈민과 노동자의 구분선이 모호한 생활수준에서 노동자 공동체의 형성은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높은 이직율은 안정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72년 4월말 현재 여성 제조업 노동자의 근속연수는 2년 정도에 불과하였다⁹⁾

이와 더불어 국가와 자본의 노동통제 방식은 계급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은 온정주의나 국가조합주의라고 할 수 없는 노동자 배제적인 권위주의적인 것이었다. 개별 기업수준에서도 노동통제방식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공장 내의 권위구조와 노사관계는 자주 가부장제적 가족 구조를 반영하고 재생산”¹⁰⁾하였으며, “한국 공장의 노동환경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조차도 보장하지 못했다.”¹¹⁾ 저자는 노동자들이 이런 공장에서의 “가부장제적·전체주의적 권위”를 견디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진짜 요인은 강한 노동윤리나 일이나 회사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깊이 새겨진 가족을 위한 자기희생의 윤리”¹²⁾였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개인들의 헌법적 권

8) 노동 경험과 노동자 정체성의 차이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구로공단의 콘트롤데이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공단내 타업체 노동자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노동자로서의 공유된 동질적 의식도 아주 적었다.

9) 노동청, 『근로여성의 현황』 (1972), 47쪽.

10) 구해근, 앞의 책, 81쪽.

11) 구해근, 앞의 책, 90쪽.

12) 구해근, 앞의 책, 99쪽.

리에 대한 일상적인 무시, 비합리적인 요구와 힘든 규율의 강제, 상관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끊임없는 언어적·육체적 체벌 등은 한국 軍 조직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체로 이와 똑같은 모습들이 한국 기업에서 재현되었다”¹³⁾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에 대한 헌신이나 군대문화가 노동계급형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국가와 자본의 노동통제가 폭력을 동반한 억압과 산업화기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가부장제적 성격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노동통제 방식들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원본이 대상으로 삼은 주요 독자층은 미국과 유럽의 학자·학생들”이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피상적으로 기술”¹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노동계급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전략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논평자가 보기에 이와 관련하여 ‘공장새마을운동과 노동자에 대한 ‘포상’을 예로 들 수 있다. 공장새마을운동의 한 사례로서 구로공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¹⁵⁾

공장새마을운동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국내경기가 침체하고 수출이 둔화되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공장새마을운동은 노사협조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등을 통해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영합리화로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려는 취지아래, ‘모든 기업의 창의화, 모든 근로자의 능률화, 모든 공장의 혁신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통제를 위하여 국가와 자본의 주도로 공장새마을운동이 ‘일 더하기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연수교육이 군대식 규율 속에서 광범위한 대상에게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구로공단 새마을연수원에서는 1974년부터 80년까지 만도 대표지도자반(최고경영자반) 1,826명을 포함하여 36,794명이 교육을 받았다. 70년대 대표적인 민주노조중의 하나인 원풍모방에서도 노동자 1,600명 전원을 50여명씩 교대로 새마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심지어는 기계가동이 일부 중지되고, 교육에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 것도 감수하였다.¹⁶⁾

13) 구해근, 앞의 책, 106쪽.

14) 구해근, 앞의 책, 6~7쪽.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九老區誌』(1997), 561~571쪽 참조.

국가의 노동자에 대한 포상의 예로는 노동청에서 시행한 ‘모범 수가 공모나 ‘근로자의 날’ 표창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972년 근로자의 날에 청와대에 서 대통령 부인 육영수로부터 모범근로자 초청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청계노조 부녀부장도 초청되었다. 이런 점들이 노동계급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한국의 노동계급의 형성과 노동자문화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계급과는 구별되는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작업장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점에서, 작업장 규율을 비롯한 노동과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3. 민주노조운동과 교회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여성 경공업 교회중심의 운동이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자도 이런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가톨릭노동청년회(JOC)와 도시산업선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노동자들이 교회의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⁷⁾라고 한다.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서 1970년대와 80년대 초 한국 노동운동에서 남성노동자와 비교하여 여성노동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운동을 전개한 이유를 찾고 있다. 즉, “경공업 여성노동자들과 진보적인 교회조직 간에 형성된 긴밀한 연계”¹⁸⁾가 이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 노동운동이 경인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교회조직에 의한 산업선교가 이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만약 교회조직들이 노동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성노동자들이 한국노동운동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질문이다. 추측컨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¹⁹⁾

저자는 ‘왜 남성노동자가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교회조직과 특별한 관계를 갖

16) 원풍모방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편, 『민주노조 10년 - 원풍모방 노동조합활동과 투쟁』, 풀빛 (1988), 236-237쪽 참조

17) 구해근, 앞의 책, 121쪽.

18) 구해근, 앞의 책, 145쪽.

19) 구해근, 앞의 책, 145쪽.

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²⁰⁾ 1) 교회집단들은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착취당하고 억압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 2) 경공업 부문이 산업선교가 침투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부문이었다. 3)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보다 교회에 다닐 가능성이 더 컸다. 4) 여성이 남성보다 인간관계에서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제약이 적었다.

위의 주장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국베아링에 근무하면서, 인천산업선교회의 창립멤버로 오랫동안 활동한 황영환에 따르면, 당시 인천산업선교회를 이끌던 조지 오글 목사의 주도로 62년에 기독교신자들 중에서 한국베아링, 인천공작창, 한국유리, 인천중공업, 흥한방직, 동일방직, 인천전기, 인천부두 등 12개 회사에서 각각 1명 총 12명의 노동자를 모아서, 6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모임은 '카프링클럽'이라고 불렸으며, 12명 중 여성은 흥한방직, 동일방직에서 각 1명씩 두 명뿐이었다. 6개월의 집중 교육과정에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선교회가 처음부터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카프링클럽 회원이 다니던 회사의 업종의 대부분이 섬유, 고무 등의 경공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공업 부문이 산업선교가 침투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부문이었다는 논지는 제한적이거나, 유보적으로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았다는 점에 대해서 교회와의 유대관계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노동력의 성별 구성, 민주노조운동 발생 회사의 노동규율, 기존 노조의 유무 및 그 성격, 회사의 역사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통제의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하였지만 여성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한 것이 어떻게 민주노조운동 등 '연대의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남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승진이나 숙련 기술의 취득에서 여성노동자들보다 훨씬 유리하였으며, 이는 남성노동자들이 국가와 자본의 억압을 덜 느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런

20) 구해근, 앞의 책, 146~147쪽 참조

점에서, 교회활동 참여 정도를 문화적으로 형성된 여성성에 따라서 유추하기보다는 계급의 객관적 상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저자의 논지가 한결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업선교회(산선)와 가톨릭노동청년회(JOC)가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만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평가는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정에서 그들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90년대까지의 장기적인 노동계급의 역사를 감안한다고 할 때, 이후의 노동운동과 노동계급의 형성에서 교회 노동운동이 새로운 저항의 담론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운동 자체의 내적 한계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즉, 이들 종교단체가 군사정권의 억압, 착취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과학적 인식보다는 온정주의와 노사화합에 관심을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저자가 “가장 큰 학문적 영감”을 받은 E. P. 톰슨의 경우에는 감리교가 영국 노동계급 형성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산업선교가 초기에는 기독교인 경영자와 한국노총의 협조 아래 노사협력관계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하였으며, 노동자중심의 산업선교가 교회와 노동자의 상호교류 속에서 형성되어왔으며, 원풍모방의 사례에서처럼 민주노조와의 ‘동맹관계’를 청산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¹⁾ 즉, 종교단체와 노동자들의 관계가 일관된 협력관계만은 아니었다는 점보다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준 사회적 조건으로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중간계급과 빈민 등 사회 각 계층·계급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의 철회와 저항의 폭발이라고 생각된다. 71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71년 4월 15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조선일보, 경향신문 기자들이 이에 동참하였으며, 8월에는 5만 명의 주민들이 과출소를 습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이른바 ‘광주대단지사건’이 발생하였다. 7월 28일과 30일에는 정치권에 의해서 유린된 사법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검찰에 의한 사법권 침해사례 7조항’을 공개하면서 전국 415명의 법관 가운데 153명이

21) 원풍모방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편, 앞의 책, 340~341쪽; 홍현영, 「1970년대 개신교의 도시 산업선교회 활동」, 한양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02), 참조

사표를 내고 사법권의 독립을 결의하는 이른바 ‘사법부파동’이 발생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와 시민사회의 자율성 억압 등으로 인하여, 도시빈민뿐만이 아니라 기자, 교수, 법관 등 중간계급의 저항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저항은 박정희 정권의 지배의 정당성을 위협하였으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저항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상승효과를 일으켰다²²⁾

많은 노동사 연구들에서처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이 성공하였거나, 사회문제화된 노동운동 사례들에 분석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노동계급의식의 발전이나, 노동운동의 발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공 사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민주노조가 결성되지는 못하였지만,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 이외의 노조들과 우발적인 파업 등의 노동운동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할 가치가 있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연구 한다는 저자의 연구 방향에 따르면’도 대부분의 노동자가 처하였던 상황과 그들의 의식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노동자정체성과 노동자문화

E. P. 톰슨은 계급을 “사회적·문화적 구성체²³⁾라고 파악하면서, 전통과 문화가 계급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런 입장을 수용하여 한국 노동계급 형성에 영향을 준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까지 한국 노동자들의 시위에서 자주 나타난 주제 중 하나는 인간적인 대우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대우가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관한 요구”와 “노사관계의 개선에 관한 것”을 의미하였다고 한다. 그는 “인간적인 대우를 향한 한국 노동자들의 절규는 그들이 하루 하루 경

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1984); 전광희 『1970년대 전반기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1999); 신광영, 『1970년대 전반기 한국의 민주화운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19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2001) 등 참조

23) E. P. 톰슨,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상권, 창작과비평사(2000), 10 쪽

힘하는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억압에 대한 반작용”이었고, “그들의 계급경험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고 한다. 즉, 저자는 “한국 노동자들은 계급에 기초한 억압과 지위 불평등 모두에 맞서 투쟁했고, 그들의 투쟁은 계급상황과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고 있다.²⁴⁾ 이런 점에서, 저자는 “유교적 신분체계의 핵심요소이자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가장 핵심적인 잣대로 남아 있는 교육의 상징성”²⁵⁾에 주목한다.

그러나, 논평자가 보기에는 교육이데올로기의 영향에 대하여 지나친 강조점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학력’이 신분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간주되었는지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신분’이라는 전근대사회의 계층질서보다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라는 측면에서 학력은 더 많은 임금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직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이었다. 교육이나 ‘학력’에 따른 차별은 노동자들이 그것을 선망하도록 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노동자들은 분명히 세계를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보았지만, 그들의 일기와 수기에서 그려진 불평등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이라기보다는,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못한 사람간의 불평등이었다”²⁶⁾는 지적은 제한적인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 70년대 노동운동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전태일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빈부격차를 비판하고 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빈한 자는 부한 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빈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왜 하물며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연소자들이 때문고 더러운 부한 자의 기름이 되어야 합니까?”²⁷⁾ 또한, 70년대 노동쟁의의 원인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임금인상과 임금체불청산요구였다는 점²⁸⁾에서 저자의 주장이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생각이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한국 노동계급형성의 특수성으로 ‘한(恨)’이라는 한국인의 정서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은 분명 계급언어는 아니”지만 “불의에 대한 인식과 저항정신을 높이는 도덕적 언어”이고, “정신적 저항의 언어”라는 것

24) 구해근, 앞의 책, 187~189쪽.

25) 구해근, 앞의 책, 193쪽.

26) 구해근, 앞의 책, 196쪽.

27)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돌베개 (1995), 154쪽.

28) 김금수, 「70년대 노동자계급의 상황과 성장」, 『한국 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풀빛 (1986), 59쪽

이다. 나아가서, “한이 자극될 때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위자들은 강력한 투쟁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 의도적으로 이런 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²⁹⁾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한(恨)’의 자극이 “불의에 대한 인식과 저항정신을 높이는 도덕적 언어”로서 노동계급형성과 노동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가는 의문스럽다. 사회적 억압과 비인간적 대우를 벗어나는 개인차원의 손쉬운 방법은 거대한 국가권력이나 기업체의 경영자에 대한 저항보다는 공장으로로부터의 탈출(이직)이나 술집 매춘 등의 유흥업에 뛰어들어 더 나은 소득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공장의 중간관리자에 협력하여 반대급부를 획득하는 것이 더욱 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더 일반적인 현상은 체념과 비탄 속에서 자조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한(恨)’이 지닌 내포적 의미가 과연 다른 국가의 노동계급의 정서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문화주의적’ 편향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과 같은 ‘약한 자’(the weak)의 정서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와 구분되는 각 민족 국가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노동자들의 특수한 감정구조에 대하여 동시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계급언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즉, 노동계급이 국가와 자본의 ‘명명(命名)’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히 ‘근로자’나 ‘공돌이·공순이’라는 계급언어를 ‘노동자’로 대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계급 정체성의 변화를 읽어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공돌이·공순이’라는 언어를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비하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저자가 표현처럼 “정신적 저항의 언어”³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약적 언어나 반어적 표현들은 현실 모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자신의 구체적 경험과 그들의 관점”에서 계급언어는 파악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노동계급형성에 기여한 문화적, 역사적 요소로서 민중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민중문화의 고유한 속성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³¹⁾ 즉, 1) 공동체적·집단적 정신, 2) 사회적 부당성의 폭로와 비판, 3)

29) 구해근, 앞의 책, 202~203쪽.

30) 구해근, 앞의 책, 202쪽.

신명(집단적 도취감)이 민중문화의 특징이며 이런 민중문화운동이 노동자들의 경제투쟁과 결합되어 역동적인 노동계급운동을 만들었다고 한다. 저자가 제시한 민중문화의 특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민중문화의 계승과 변용의 과정이 노동운동에는 기여하였지만, 노동계급문화의 형성이나 계급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민중문화가 그 자체로 노동계급문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민중문화가 노동계급의 정체성이나 의식 형성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은 민중문화만을 파업 등 노동운동에 동원한 것이 아니라, 산업선교회 등에서 배운 저항가요와 흑인영가 등도 연대형성의 매체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압축적 산업화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민중문화만이 아니라 서구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은 대중문화와 교회문화를 통해서도 계급정체성의 형성하였던 것이다. 민중문화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는 한국 노동계급형성의 특수성을 발견하기 위한 지나친 확대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문헌

- E. P. 톰슨,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상권, 창작과비평사, 2000.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김금수, 「70년대 노동자계급의 상황과 성장」, 『한국 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풀빛, 1986, 59 쪽
 노동청, 『근로여성의 현황』, 1972.
 서울특별시 구로구, 『九老區誌』, 1997.
 신광영, 「1970년대 전반기 한국의 민주화운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 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원풍모방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편, 『민주노조 10년 - 원풍모방 노동조합활동과 투쟁』, 풀빛, 1988.
 전광희, 「1970년대 전반기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70년대 전

31) 구해근, 앞의 책, 213~214쪽 참조

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2001.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돌베개, 199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4.

홍현영, 「1970년대 개신교의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한양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